

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시점

2026.10.15.(목)

산업부 장관, 서남권 이어 충청권 메가프로젝트도 직접 챙긴다

- 김정관 장관, ‘충전대 TF’ 제4차 회의 주재 -
- 투자기업·지방정부·관계부처와 투자 이행 상황 점검 -
- 기업별 인허가·전력·용수 애로 해소 방안 논의 -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지난 12일 서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현장점검에 이어 10.15(목)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투자기업, 충청권 지방정부,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충전대(충청권 첨단전략산업 대도약) 민관합동 실행 TF’ 제4차 회의를 주재하였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전국을 순차적으로 찾아 투자 현장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 회의도 그 일환이다.

충전대 TF는 지난 7월 충청권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된 392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투자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7.3일 출범하였다. 이후 1차 회의(7.30)에서 기업의 투자계획과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2차 회의(9.2)에서 관계부처와 건의사항별 해소방안을 협의했으며, 3차 회의(9.10)에서는 지방정부별 인허가 현황을 점검하였다.

김 장관은 그간의 TF 논의를 종합하여 ▲기업별 투자 진행 상황과 애로·건의, ▲지방정부의 인허가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고, 애로 해소방안을 관계부처·지방정부와 함께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투자기업들은 기업별 투자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투자 일정에 맞춰 해결이 필요한 인허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관련 애로와 건의사항을 제기하였다.

충청권 지방정부는 기업별 인허가 추진 상황과 향후 처리 계획을 공유하였으며, 여러 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와 함께 TF를 중심으로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김정관 장관은 “대규모 투자는 투자계획을 세우는 것만큼이나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투자와 관련된 인허가의 신속처리, 전력과 용수의 안정적 공급, 기업애로에 대한 즉각 대응 체계만큼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기업 투자에 필요한 인센티브, 세제, 인력, 정주여건을 포함한 7가지 핵심정책 패키지도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은 “기업 현장에서 생기는 애로는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하다면 해당 장관과 직접 협의해 방안을 찾겠다”며, “충청권 메가프로젝트가 5극3특 균형발전의 성공적 모델이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건의를 관계부처·지방정부와 함께 과제별로 관리하고, 그 이행 상황을 TF를 통해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일시/장소 : 10.15(목) 10:00~11:30 / 한국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산업부 장관(주재), 투자기업, 지방정부, 관계부처
- TF회의 안건 : ①투자 진행 상황 총괄(산업부)
 ②기업별 투자 진행 상황 및 애로·건의
 ③지방정부 인허가 추진 상황 및 향후계획

담당 부서	지역경제정책관	책임자	과 장	위승복 (044-203-4420)
	지역경제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성치운 (044-203-4424)